

### 제1절 지역산업의 재편성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2절 금융업의 재편성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3절 재건된 지역기업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4절 목포상공회의소의 재편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5절 수산업의 재편과 협동조합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3장 해방 후~1950년대

### 목포 경제의 쇠퇴와 지역산업의 재편성

#### 제1절 지역산업의 재편성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식민지적 지역경제체제가 와해되고, 한국 사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945~1961년 기간 경제 현상의 주요 특징은 귀속 재산의 불하, 외국원조, 정부지원 등으로 이 시기 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산업자본의 성숙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권적 요소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점에 의한 시장 경쟁의 제한, 정경유착이라는 속성은 산업기반의 취약성, 금융·원료·기술의 비자립성, 대외의존성이라는 약점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많은 대기업들의 출발점이 이 시기인데 시대적 환경과 맞물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출발하였다. 또 광복은 목포의 도시적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식민지체제에서 목포가 지녔던 일본과 전남을 잇는 거점항으로서의 역할이 퇴색하고, 지역 경제의 중심이라는 의미도 줄어들었다. 일본-중국을 연결하던 수출(입)항으로서의 목포의 지위는 연안수송로의 중심이라는 한정된 역할로 축소되었다.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1950년대 전 기간을 통하여 이런 경향은 강화되었다. 당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구호물자의 대부분은 부산과 인천을 거쳐서 들어왔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이 수출 지향적 공업화로 표현되면서 국제 분업체제에 깊게 편입될수록 목포는 경제적 낙후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목포항의 하역 능력은 해방 직후 30만t에서 6·25 전쟁 직후 15만t으로 감소하였으며 1960년에 이르러서야 해방 직후의 하역 능력을 되찾은 것을 들 수 있다.

1941년 말 현재 일본인 회사의 자본이 91%나 될 정도로 조선 경제는 압도적으로 일본 자본이 지배하고 있었다. 적산 공장의 원자재 결핍, 대체 설비의 어려움, 자금 부족 등과 더불어 한국인 관리자의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축소재생산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해방



후 자재와 자금까지 조달되지 못하면서 생산 회복이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경제 단절이 남한 경제에 미친 여파도 컸다. 남북 교역 규모는 1949년 3월 국방부가 전면 중단시킬 때까지 대외무역에 필적할 정도였다. 특히 반출액에 비해 반입량(약 14억 3,400만 원)이 2배 이상이었다. 주요 반출 품목은 생고무, 광목, 양철, 면사, 작업화 및 전구 등이었고, 주요 반입 품목은 비료, 카바이드, 시멘트, 마른 명태, 가성소다 등이었다. 중공업이나 전력 시설이 집중된 북한의 경제 재건 입지가 남한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교역단절에서 오는 충격도 남한이 훨씬 커서, 북한의 송전 중단(1948년 5월)으로 생산고의 3/4이 축소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 중반부터 빠르게 생산 회복을 추진한 주체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었다.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의한 종속의 고리가 약했거나 해방 후 신설된 중소기업들이었다. 금속, 기계, 가구 등 생산재 부문은 축소되었지만 화학, 방직이나 식료품 부문은 조업이 활발해진 것이다. 대규모 공업 회사가 800여 개(제조업, 광업, 토건업 포함)나 신설되었고, 생산액 비율도 민영 공장(65%)이 귀속 공장(35%)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외자 도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시도가 활발해졌다. 목포의 경제적 부흥을 선도하던 집단은 일제 강점기 말 민족 자본의 형태를 유지하던 중소기업체와 일부 경제인층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6·25 전쟁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시설물이 파괴되고 만다. 파행적인 후진 자본주의 과정에 있던 우리나라는 1950년 당시 까지도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 산업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노동 인구의 종사율이 27% 정도에 달하는 공업 분야의 피해는 극심하였다. 목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6·25 이전 목포에는 섬유공업공장 22, 화학공장 11, 금속기계공장 34, 도정공장 45, 제재공장 31, 기타를 합하여 229개의 중소기업이 있었으나 6·25 이후에 34개 공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목포 3대 공장인 대동유지, 동양면업(당시 남북면업), 대한면업 3사의 피해는 극심하여 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종업원 30인 이상의 17개 공장 중 1951년 1월까지 가동하기 시작한 공장은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목포직물주식회사 뿐이었다.

표 1 해방 직후 목포의 산업체 및 노동자 분포(1946년 11월)

업종	공장수	비율(%)	노동자수	비율(%)
금속	9	11.8	139	10
기계	16	21.1	321	23
화학	7	9.2	279	20.1
공예	3	3.9	48	3.4
요업	3	3.9	95	6.8

업종	공장수	비율(%)	노동자수	비율(%)
방직	8	10.5	256	18.4
제재	10	13.2	96	6.9
식료품	15	19.8	113	8.1
인쇄	4	5.3	33	2.4
토이건	1	1.3	13	0.9
합계	76	100.0	1,393	100.0

출전: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표 1〉은 해방된 지 약 1년 후의 목포의 산업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표에 따르면 목포의 공장은 1946년 11월 현재 총 76개였고, 여기에 종사한 노동자는 1,393명이었다. 이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이 기계, 화학, 방직공업 등이었는데, 공장 단위로는 섬유산업에 속하는 몇 개의 공장들이 공사 형태로 유지되었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모색은 계속 되었다. 해방 직후 전국의 도시 중심으로 신설 회사가 많이 설립되었는데, 목포에서도 1946년에만 13개 회사, 1947년에 20개 회사가 설립되었다.

표 2 목포의 해방 직후 회사 동향

(단위: 천 원)

연도	신설회사수	불입자본금	해산회사수	불입자본금
1945	1	523	-	-
1946	13	14,985	2	75
1947	20	35,452	1	50
1948	19	78,050	1	3,000

출전: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 제2절 금융업의 재편성

### 1. 중앙은행

목포시에 중앙은행의 지점이 설치된 것은 1909년 10월 29일 구 한국은행 목포지점이 설치된 것이다. 한국은행 목포지점은 1898년 10월에 개설된 일본 제일은행 목포지점을 위양받은 것인데, 1910년 8월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본격적인 경제적 침략을 위한 금융제도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1911년 2월 「조선은행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8월 구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칭하자 구 한국은행 목포지점도 조선은행 목포지점으로 개칭되었다. 해방 후 수년간 정치·사회적 혼란과 격심한 인플레이 하에서 금융 질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각 금융기관은 단기 상업금융기관으로 동질화하였으며 중앙은행인 조선은행도 신용통제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재정 면에서 균형 예산을 유지하는 것과 금융 면에서 통화 신용의 통제 권한을 가진 현대적인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1950년 5월 1일 「한국은행법」이 제정되고 1950년 6월 12일 조선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 업무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조선은행 목포지점은 이 때 다시 한국은행으로 환원되고 한국은행 목포지점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 목포지점은 1950년 6월 12일에 개점하였고 1970년 2월 2일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발족됨으로써 제주도는 한국은행 목포지점 관할에서 분리되었다.

### 2. 일반 시중 은행

#### 1) 제일은행

제일은행은 1928년에 제정된 「저축은행령」에 의하여 1929년 조선식산은행의 저축에 관한 예대금 업무를 인수하여 저축 예금을 전담하는 특수 은행인 조선저축은행으로 발족하였다. 1950년 5월 20일에 이름을 한국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다가 1958년 12월 1일에는 다시 제일은행으로 개칭되었다. 즉 제일은행 목포지점은 1954년 1월 25일에 설치된 한국저축은행 목포지점이 1958년 12월 1일 제일은행 목포지점으로 바뀐 것이다.

#### 2) 한일은행

한일은행은 1932년 12월 16일 창립된 조선신탁주식회사와 1937년 8월 14일에 창립된 조선중앙무진회사에서 비롯되는데 목포시에서는 1934년 2월 17일 조선신탁주식회사 목포지점이 설치한 데서부터 비롯되

었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1942년 9월 1일 조선무진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46년 4월 1일에는 조선상호은행으로, 1950년 5월 17일에는 주식회사 상호은행으로, 1950년 6월 6일에는 한국상공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1954년 10월 1일에는 한국농업은행으로, 1960년 1월 1일에는 한일은행으로 개칭하였는데 목포지점도 이에 따라 각각 명칭을 개칭하여 왔다.

### 3) 조흥은행

1887년 2월에 설립된 한성은행이 인천시내 지점을 개설하고 1943년 10월 1일 한성은행과 동일은행을 합병하여 조흥은행을 발족한 후 1946년 4월 1일에 목포지점을 개설하였다.

## 3. 특수 은행

### 1) 중소기업은행

1950년대까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반 금융 부분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과 대출 자금 등 재정 투자 대출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취급 은행이 일반 은행,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제한된 재원에 의한 효율적인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 체제를 정비하여 구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모체로 1961년 8월 1일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이 설치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서민금융의 전담기구로 1963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영세서민 금융은 무진업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신용기반의 쇠약 및 금리 계산의 불확실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1962년 2월 정부는 무진회사를 개편하여 서민금융 전담기구로써 한국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무진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발생한 불건전채권 보유액의 과다, 납입자본금의 과소, 법규 미비를 이용한 유사 서민금융기관의 발호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도민금융기관의 일원화보다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한국국민은행과 2개의 잔재 무진회사를 합병하여 서민금융 전담의 단일 기구로서 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목포 시내에 국민은행지점이 설립된 것은 1963년 2월 1일이었다.

### 제3절 재건된 지역기업

6·25 전쟁 이후 경제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기존의 귀속 사업체의 불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해방 직후 선정된 관리인들이나 정치권력과 연고가 있는 인사들이 불하를 받았다. 목포의 경우도 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6·25 전쟁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조 경제가 본격화 되었지만, 이것은 서울의 중앙정치세력과 연고를 가진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어서 목포를 비롯한 호남 공업의 부흥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제 각 공업 부문별로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섬유업 및 대표기업

원래 일제 강점기 한국의 섬유산업, 특히 방직공업은 1930년대 초반, 소위 만주사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농촌의 전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반적이었던 시기에 일본방직공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식된 방직공업은 8·15 후 면화 재배를 지탱하고 있던 수매 메커니즘이 와해되고 외국산 면화의 수입으로 면화 재배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정부 수립 후 정부의 생산 개입으로 회복의 기미가 있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한 생산 시설의 파괴는 방직공업의 쇠퇴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섬유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면화 생산은 1944년 22만 8천 표(俵)에서 1945년 16만 3천 표, 1946년 9만 표로 생산이 격감했다. 전남의 경우 면화 생산은 1950년대 초반에 이르면 해방 전의 10% 수준으로 쇠퇴하였다. 이와 같은 원료 난은 6·25 전쟁에서의 시설 파괴로 인한 황폐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1950년대에 전반적으로 쇠퇴하였다. 특히 견직공업의 쇠퇴가 두드러졌다. 원료, 자금, 기술, 동력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외형적으로는 민족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면화 관련 산업은 내부적으로는 원료 루트, 생산 루트의 파괴와 6·25로 인한 공장시설물의 파괴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였으며, 이후에는 미국 등지에서 저가에 수입되는 면화에 의해 원료 조달이 가능한 일부 대규모 면방직공장들만 유지되었다. 그러나 면화의 국내 생산은 크게 감소하여 전남의 중소 규모 섬유산업체는 쇠퇴하였다.

해방 후 목포 섬유산업의 중심은 대한면업공사와 동양면업공사였다. 대한면업공사는 1905년 자본금 20만 원으로 창립된 한국면화주식회사를 기원으로 한다. 이 회사는 1919년에 자본금을 2백만 원으로 증가하고, 명칭을 조선면화주식회사라 개칭하면서 목포공장을 위시하여 영산포, 남평, 여수 등 소규모 공장을 설치하여 조면기 200여 대와 기타 설비를 충실하게 시설하였으며 1923년에는 당사 부설 면포공장을 설립하여 면포를 제직하였다. 해방 직전인 1945년 5월 목포조면공장 전부가 대화재로 소실된 상태에서

1945년 10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하였는데 관재령에 의거하여 귀속 공장이 되었다. 1946년 3월 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나달수가 취임하여 1947년 3월까지 공장을 복구하고 운영하면서 대한면업공사로 개칭하였다. 6·25 전쟁 과정에서 다시 전소되었는데, 1951년 5월 조면공장 전부와 직포공장 일부를 복구하였다. 1954년 10월 관리인이던 나달수가 불하를 받았다. 대한면업공사와 쌍벽을 이루던 업체가 동양면업공사였다. 이것은 1900년 3월 27일 일본 삼정물산주식회사가 경영하던 전남의 목포, 여수, 송정리 소재의 조면공장을 인수하여 공칭자본금 100만 원 불입자본금 50만 원으로 창립하여 본사를 서울에 두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면 생산에 치중기 위해 본사를 목포시로 이전하였으며 1925년에 충청남도, 1927년에 충청북도, 1932년에는 경기도의 지정 매수권을 각각 취득하여 중남부 지방 전역의 면 생산지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1936년에 자본금 50만 원을 불입하는 동시에 공장 시설을 확충하고 1937년에는 10만 원을 증자하여 업무를 진척시켰다. 그 후 1931년 9월 1일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942년 5월에 목포에 있던 전남면화주식회사 및 여수에 있던 본전 조면공장을 흡수 합병하여 국내 생산 면 취급상의 약 6할을 차지하게 된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종업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 일체의 재산을 보전하던 중 동년 10월 10일 당시 미군정 당국의 인가로 박병주가 관리인이 되어 운영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에서 비참한 전화를 당하여 수원, 장단, 충주, 영동, 목포 등지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54년 9월 25일 정부관재당국의 공장 단위 분산 관리방침에 의하여 본사를 해체하고 각 공장 단위로 정부에서 관리인을 임명하게 되자 목포 공장은 박병주가 피임되었다. 이후 사명을 동양면업공사로 개칭하고 종전 목포 공장의 기득권은 물론 제반 운영권을 확보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1955년 2월 4일 정부의 귀속 재산 불하 방침에 의하여 박병주가 민영 사업체로 완전히 불하받게 되었다.

이 시기 목포의 방직업은 대한면업공사 직포공장을 필두로, 호남직물, 부국섬유, 대성방직, 남선직물, 목포제면 등 중소 규모 공장에 의해 유지되었다. 목포의 대표적인 견직공장이었던 목포직물주식회사는 1934년 천독근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1949년 현재 남한의 5대 견직공장의 하나로서 발전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300만 원을 증자하였고, 1948년을 전후한 시기에 100만 원을 더 투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였으며, 특히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료 모사 구입난으로 인하여 일제 강점기에 비하여 2할 정도의 작업률을 보이는 등 공장가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sup>01)</sup>

#### 1) 조선면화주식회사(朝鮮棉花株式會社)

일제 강점기의 조선면화주식회사가 해방 이후 나달수(羅達洙)의 관리 하에 경영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

01) 『호남신문』 1949. 09. 28.

면화 공장은 나주, 이리, 목포 세 곳에 농림부 산하의 조면공장이 있었고, 목포 해안동에는 상공부 관할의 직포공장이 있었다. 공칭 자본은 2천만 원, 운영자금은 1억 원이었다. 당시 조선면화는 원동기 460마력, 조면기 200대, 직포기 158대를 갖추고 있었다.

## 2) 목포직물회사(木浦織物會社)

1930년대 만주 사변 이후 만주특수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던 방직공업에 발맞추어 1934년 목포직물회사는 당시 일본에서 동경공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천독근(千篤根)에 의해 창업되었다. 연동에 자리 잡은 이 회사의 공장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5대 견직공장의 대열에 들어 있었다. 노동자는 80명, 직기는 80대, 생산 능력은 하루 2천 마 정도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들어오던 원료가 끊기어 가동률은 20% 정도에 그쳤다. 사장 천독근은 소설가 박화성(朴花城)과 일제 말기 재혼하였고, 목포부회 의원과 전남도회 의원을 지냈다.

## 2. 금속기계공업

한국의 금속공업은 일제 강점기 총 공산액의 90%를 북한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철강 생산량도 99.9%를 북한이 점하고 있었으므로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은 엄청나게 컸다. 그나마 남한에서 유일하게 공산액의 74.2% 정도를 점하고 있었던 기계 기구 공업 분야는 일본 공업 발전의 부속물로 유지되어 대부분 일본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목포에서는 2, 3개소의 한국인 기업체가 있었는데 일본인 하청 공장이었다. 그나마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인 기업체(목포조선철공)를 강제 병합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인 기업체는 소멸했다. 백천기업주식회사 전신인 백천철공소만이 목포조선철공주식회사 지정공장으로서 한인 기업체의 명맥을 유지하여 운영되었을 뿐이다. 해방이 되자 이제까지 일인 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었던 일부 한국인 기술자나 사무 직원 등이 각 군소 주물공장이나 철공소를 설립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자금난과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불과 반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다. 미군정기에 남한 890여 개소의 금속기계 공업은 90% 이상이 적산이라는 명목 하에 방치되어 왔으며, 정부 출범 후 경제부흥 등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도중 6·25 전쟁을 맞게 되었다.

### 1) 백천철공소

최영진에 의해 1930년 설립된 백천철공소가 1951년 말에 과거의 법인체로 새로 발족하여 목포의 타 산



업 부문에 비해 그 복구가 지연되었던 금속 기계 공업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선박기관 부품의 주조와 수리는 물론 소규모의 농기구 생산, 선반 등 공작 기계의 대폭 증설로 대규모의 농업용 기계 제작도 추진하였다.

## 2) 남선제정 유한회사

제정업에 종사하였던 최용관(崔龍官) 외 4명이 1947년 8월 13일 자본금 150만 원의 유한회사를 발족하게 되었다. 1949년 증자하여 자본금을 600만 원으로 증설 운영하던 중에 6·25 전쟁이 발발, 전쟁 후 정태중(丁泰中)이 이를 인수하여 파괴된 시설의 복구와 동시에 1952년 작업을 시작하여 호남 지방 유일의 제정 공장으로 발전되었다.

## 3. 화학공업

화학공업 내의 고무공업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해방 이후 일시적으로 발전의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화학공업의 생산과정이 단순하다는 데 있었다. 그나마 이러한 발전의 과정은 전쟁 후 고무신의 주된 시장이었던 농촌의 피폐로 인해 판로를 봉쇄당하면서 대부분의 공장이 폐업하는 과정을 거쳐온다.

목포의 화학공업 중 특이한 것이 제유공업이다. 이것은 면실유 제조로서 목포가 면화관련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가장 규모가 컸던 일화제유가 해방 후 대동유지로 바뀌었다. 대동유지는 당시의 열악한 남한공업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생산량 또한 커서 남한 제1의 유지공장이라고 일컬어졌다. 이 회사는 원래 일제의 손으로 창설되었는데 이 공장이 완전히 움직일 때의 생산능력은 연산 4억 3,660만 원에 달하였다. 구체적인 생산품으로는 일반 식용유, 비누, 다이너마이트 촉진제 등 다종다양한 것인데 주로 원료 생산이었다. 그러나 1948년 남한 면화 수집량이 400만 근에 불과했던 관계로 마침내 주원료인 면실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1948년 12월부터 조업을 중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소량의 수집된 원료에 기초하여 부분조업을 하였다.<sup>02)</sup> 대동유지는 1953년 휴면(사실상의 폐업) 상태를 맞는다.

목포의 또 하나의 특징 있는 공업이 요업이었다. 요업은 풍부한 남한의 도자기 원료를 기반으로 195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유일하게 확대되었던 사업 분야이다. 이 요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행남사와 조선내화

02) 『호남신문』 1949. 09. 28.



이다. 행남사는 1942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민족 자본계 회사로 해방 후 규모가 계속 커져 이 부문의 유력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조선내화는 내화연와, 내화점토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1938년 설립되었는데, 해방과 더불어 귀속공장이 되었으며, 1947년 이훈동이 불하받아 설비를 확장하였다. 해남군 성산광산과 완도군 노화광산을 직영하면서 생산물을 일본 및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 1) 행남사(杏南社)

행남사는 1942년 김창훈(金昌勳)에 의해 창립된 도기공장(陶器工場)으로서 식기(食器), 전기 애자 등 2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월 생산액은 120만 원에 달하였으며, 도기 원료는 경남 하동에서 공급받았다. 행남사는 이후 국내 굴지의 도자기 제조업체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 2)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

1938년 설립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는 해방 후 손용기가 인수해 경영하다가 1947년 5월 15일 이훈동이 인수하여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원료인 납석을 해남 성산광산과 완도 노화광산에서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다.

#### 3) 전남고무공업회사

1947년 3월 배동현(당시 42세) 등 신진 기예의 사업가들이 창업하였다. 불입 자본은 500만 원이었으며, 하루 생산량은 고무신, 장화, 운동화 등 2천 켤 내외였다.

#### 4) 한일성냥공장

목포시 성냥공업의 시초는 1946년 11월에 남교동에 설치된 '평화표(한일성냥)' 공장이며 성냥을 생산했다. 특히 근대 기계 시설로 1955년 9월에 자본금 150만 원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평화성냥'은 전복까지 판로를 개척한다. 1955년 12월 화재로 말미암아 공장 시설이 전소되었으나 복구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산품인 성냥을 계속해서 제조하였다.

#### 4. 식료품공업

식료품공업은 한국의 풍부한 원료와 싼 임금을 기반으로 일본에 대한 식료 공급을 위해 일찍부터 발달했다. 일제 강점기의 식료품 공업은 생산공장수와 고용인원 등의 공업 구성 측면에서는 양적인 비중이 컸으나, 생산 방식과 경영 규모의 측면에서는 영세하고 전근대성이 온존하고 있었다. 공장의 90%는 30인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고 대공장은 1%에 불과하였다. 군량미 공급에 급급하던 일제는 1941년부터는 원료를 목포에 집중시켜 천일정미소를 위시하여 시내 9개 식량영단 공장에서 식량을 집중 반출하였다. 타 지방에서는 영세민들이 기아 상태에 허덕였으나 목포의 경우 이들 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별로 받지 않았다.

해방 직후의 무질서와 혼란은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일반고시 제 1호에 의하여 미국 자유 시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근 10년간 강력한 통제 하에 억압되어 있던 미국 시장이 교란되어 쌀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미군정은 결국 그 해 12월 18일 일반 고시로 미국 통제 정책으로 환원하였다. 6·25 전쟁 이후 목포에서 가동 중이던 179개 공장 중 34%인 61개 공장이 식료품 공장이었을 만큼 성업하던 도정업은 1952년에 이르러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산지 도정 원칙이라는 조례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받았다. 연간 백미 870만 석을 도정하던 업체는 원료 공급량 감소로 파멸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조업의 경우 광복 후의 무질서한 사회혼란, 그리고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군정 당국에 의해 주조 면허가 남발되어 시장이 교란되었다. 6·25 전쟁 이후 국내 식량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미곡을 원료로 하는 양조업을 대체로 금지함에 따라 정규업자의 주류 생산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한 와중에 김문옥의 전 남정미장을 비롯한 대소 50여 개 공장과 문택호의 목포제빙주식회사 등이 운영을 개시하였고, 김상두의 목포양조를 비롯한 대소 10개소 공장이 주류를 생산하고 박주석의 목포장유양조장이 간장 및 된장 등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귀국한 뒤 상공업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포의 경제는 목포의 상공인들에 의하여 재건되기 시작했다. 목포의 주요 회사,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동유지(大東油脂)

1926년 창립된 일화제유의 후신이다. 1949년 당시 지배인은 장봉환(張鳳煥)으로서 유지업체에서 27년간 경험을 쌓은 이였다. 대동유지는 면실유 연산 3,000천t, 면실박(棉實粕) 11,400t, 비누 300t 등으로 연

생산액은 4억 3,660만 원으로 동 업계 국내 최대의 공장이었다.

## 2) 목포제빙주식회사

1929년 창업, 제빙 및 청량 음료수를 제조, 1930년에 평강(平岡)제빙소를 매수 하루 10t을 생산을 하여 오던 중 6·25 전쟁으로 인해 건물 및 중요 시설 일체를 전파 당하였다. 1951년 문택호(文宅鎬)가 인수하여 1952년 8월에 제빙공장만을 복구하여 일산 10t을 제빙하였다. 다음해 7월에는 청량 음료수공장 시설을 복구 완료하여 사이다(삼학사이다)의 하루 생산이 100상자의 실적을 이루었다.

## 5. 기타 서비스

### ○ 남조선미유주식회사(南朝鮮美油株式會社)

1946년 4월 손용기(孫容基), 용상봉(龍相奉) 등의 발기로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창립하였다. 목포부와 주변 9개 군에 유류(油類)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목포 용당리에 유류 저장 창고를 설치하고 KOS석유저장회사 출장소를 직할로 하였다. 이로써 부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목포 항구로 석유가 들어와 가격을 감하시킬 수 있었다.

## 6. 교통 및 운수기업

당시 육상 교통의 경우 6·25 전쟁 이후 미군이 버리고 간 파괴된 자동차들의 부품을 활용해 만든 지프차에 의존하였다. 실제 6·25 전쟁 이후 차량 상황은 더욱 열악해져 1955년에는 지프차 13대만이 영업용으로 운행 가능한 상황이었다. 1960년 이후엔 '시발자동차'가 나왔다. 자동차 생산을 최초로 시작했다는 뜻으로 '시발(始發)'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이 시기 버스 영업도 시작되는데 시내버스의 개념은 아직 없고 인근 시외 노선에 버스 2대가 배차되었다. 또한 1950년대 중반 이후 목포-광주, 목포-해제, 목포-영광 간에 당시로는 장거리인 시외 노선의 영업이 시작되는데 광주여객(현 금호고속), 금성여객, 그리고 전남여객에 의해 운행되었다. 당시 장거리 시외 3사는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둔 기업들이었다.

해상 운송의 경우 국내 기업인에 의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남일운수가 대표적인 여객 및 화물 운수회사였다. 화물 운송의 경우 조선통운이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표 3 여객 선박 업체(1955년)

	회사명	대표자	기항지
1	남일운수	문재철	목포 기점 연안
2	한양기선	이극작	목포 기점 연안
3	대한해운공사목포지점	이규동	목포 기점 연안
4	조선운수	김윤수	목포 기점 연안
5	명진합명	명사봉	목포 기점 연안
6	진도운수	한명이	목포 기점 연안
7	진도군순항선조합	진도군수	목포 기점 연안
8	완도군순항선조합	완도군수	목포 기점 연안
9	무안군순항선조합	무안군수	목포 기점 연안
10	해남운수	민병일	목포 기점 연안
11	완도교통사	김천수	목포 기점 연안
12	영암운수	김학용	목포 기점 연안
13	금양기선	김봉인	목포 기점 연안

출전: 한국은행 목포지점, 『목포항산업발전사』, 1956의 내용을 정리 요약함.

### 1) 남일운수(南一運輸)

1924년 문재철과 김양숙(金良淑, 안좌면 지주)에 의해 창업된 남일운수는 운수 창고업, 위탁판매업 등으로 시작하여 해운업에 진출, 해방 이후에는 6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35개소의 항구에 기항하였다. 종업원은 60명, 객석 이용자는 월 평균 16,000명이었다. 1949년 현재 사장은 문재열(文在烈), 전무는 김중갑(金重甲)이다.

### 2) 조선통운(朝鮮通運) 목포지점

조선통운 목포지점은 1930년 4월 창립되어 해방 이후 지점장 김귀하(金貴河) 등이 경영하였다. 한때 마비 상태에 있던 해륙 운송을 원상 복구하였다. 1948년 상반기에 138,530t, 하반기에 140,447t의 화물을 취급하였는데 화물의 내용은 외국 화물로서 소금, 양곡, 비료, 유지, 잡화 등이며, 국산 화물로는 양곡, 가마니, 해산물, 시멘트 등이었다.

## 제4절 목포상공회의소의 재편

해방 후 목포의 상공인들이 조직한 목포상공협회, 목포상공조합연합회, 목포공업발전협회 등 세 단체가 모여 발기인을 선정하고 1946년 목포상공회의소를 재창립,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초대 회장에는 강선명이 선임되었다. 이어 1949년 8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김철진이 선임되었다. 김철진 회장은 1930년대 목포창고금융, 동아고무, 목포양주, 호남제탄 등을 운영하였던 김성규의 자제로 『호남평론』을 발간한 언론인이었다. 2선의 전남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의 모체가 된 목포상과대학의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이후 제3대 회장에 목포일보(후 호남일보사) 사장인 김문옥이 선임되어 의결부를 이끌었지만, 1952년 12월 법률 제274호로 「상공회의소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1953년 10월 31일 목포상공회의소가 법정 단체로 새로 설립되어 1954년 1월 의결부가 구성되었다. 초대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에 나달수(조선면화(주))가 선임되었고, 1957년과 1960년에는 제2대, 제3대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김성호(대성주조), 손용기(전남석유(주))가 각각 2대, 3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제3대 의결부가 임기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시행된 임시조치법에 따라 제4대 의원을 선출, 회장에 손용기가 재선임되었다.

## 제5절 수산업의 재편과 협동조합

목포의 경제 쇠퇴는 일차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공업에 종사하는 자본가 집단이나 노동자층을 위협하는 요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산 자원과 관련된 수산 해양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목포 경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목포의 수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당시 수산업 생산물, 특히 어류와 김은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됐다. 해방 이후 이런 생산물의 유통 경로가 단절되었으며 수산업의 일시적 침체를 가져왔다. 해방 후 전남의 수산업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가 어선수이다. 해방 직후 24,000여 척의 어선이 있었는데 1950년대 중반 9,000여 척으로 감소했다. 양식 어업의 중심이던 해태 양식은 일본으로의 수출이 막혀 침체한 반면, 굴 양식은 홍콩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당국에서 이를 장려하였다.

1913년 조선총독부 체신국 산하 해사출장소로 발족한 항만 담당 부서가 교통부 산하 목포해사국으로 재편되어 전문적으로 남한 각항과의 화물선, 객선 운행을 주관하게 된다.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목포 해사국에서 담당했던 기범선, 어선, 예선 등은 도합 1,971척, 선원 7,603명을 포함한 선박이 등록되어 있었

다. 이와 더불어 어련(漁聯) 목포출장소가 수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다.<sup>03)</sup> 목포의 수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따라 목포항의 기능을 수산업 기지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목포에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은 1947년 6월 어업조합의 결성으로 나타난다. 어업조합 목포지부는 1932년 목포출장소가 설립된 후 1952년 목포지부로 되었다. 목포지부에는 16개 어업조합이 소속되어 있었다. 목포어업조합은 1937년 설립되었는데 이전의 어시장(현 수협위원장)을 이양 받았다. 이 조직은 1947년 무안해태조합을 통합했다. 목포어업조합의 조합원은 1949년 5백여 명이었고, 어선은 254척이었다. 어업조합은 주로 어업 시설의 확대와 생산 유통 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이익 향상, 즉 어류 위탁 판매 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어업조합과 더불어 제3구 남기선 저예망어업조합의 설치도 목포의 수산 기지로서의 위상정립이 얼마나 절박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예망어업수산조합은 1974년 3월 25일 창립했다. 당시 남한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것인데, 장차 원양 어업 기지로써의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목포어업조합이 영세 어업자들의 상호 보호 조직이라면, 이 조직은 대규모 수산업자들의 조직이었다. 저예망어업수산조합은 제주, 여수, 부산에 지부가 있었고, 조기, 민어, 자갈치를 잡고 있었다.<sup>0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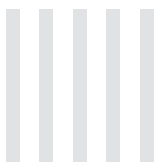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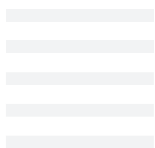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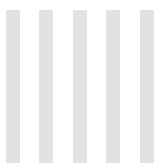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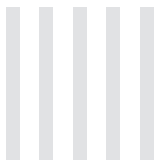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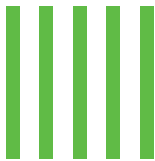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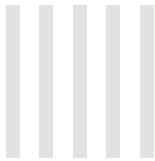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목포수협으로의 전환은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3호에 따라 그 해 4월 1일 발족하였다.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업회를 거쳐 1962년 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45년에서 1960년대 초에 걸친 시기의 목포의 경제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일제 지배의 유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생산 체제를 확립하려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면업을 비롯한 산업체의 재가동과 더불어 수출입항으로서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요업 분야의 행남사의 발전과 수산업 분야의 어업조합의 결성 등을 통한 어획량의 증대현상은 이를 대변한다. 그렇지만 목포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특히 원조 경제 하에서 목포가 중요한 거점이 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목포의 주요 수출(입)항으로서의 지위는 1950년대를 거치면서 상실되었다. 이 시기 목포는 서남해안의 주요 도서들을 잇는 연안 수송의 중심항으로서의 역할만 가능했다.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3) 『호남신문』 1949. 09. 25.

04) 『호남신문』 1947. 03. 27.



### 제1절 지역 경제의 침체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2절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3절 부문별 기업 실태와 목표를 이끈 기업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4절 지역 경제의 이슈들: 삼학양조의 파산과 목포공단 조성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5절 목포상공회의소의 운영과 5대 기업인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4장 1960년대 후반 이후 목포 경제의 침체

### 제1절 지역 경제의 침체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주도로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들어간다. 당시 국가는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공업발전계획과 이를 보조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종합개발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서울, 부산, 울산 등의 거점 도시 형성 계획이었다. 이 개발 계획은 서울과 영남권을 공업 지역으로, 호남권은 기존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지역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동남권의 집중 투자의 과정에서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중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노동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목포를 비롯한 호남권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마련되었지만, 1950년대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국가 주도형 대규모 공업단지 건설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목포는 1960년대 초를 거치면서 식민지 경제를 주도했던 산업체(면화·전직·유지)가 거의 모두 문을 닫고, 수산업과 몇몇 소규모 사업장만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산업화 없는 도시화 현상은 목포에서도 그대로 현실화되었다.<sup>01)</sup>

이 시기의 정부 주도(차관 도입, 수출 장려, 중화학공업정책) 기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해외 자본의 유치(차관 도입)

“소득이 적으면 저축도 적고, 저축이 적으면 투자율이 적고, 투자율이 적으면 생산과 소득이 낮아진다.”

01) 정근식, 「1960년대 이후 목포경제의 침체」,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363~371쪽.



라는 후진국 공통의 빈곤의 악순환과 1950년대 미국의 무상 원조로 많은 부분 발전을 하였으나 미국 잉여농산물 지원의 점차적인 감소로 인해 유상 원조(차관)의 유치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차관의 금리는 1960년대 국내 금리 22~26%에 비해 매우 낮은 5~6%에 불과했다. 당시 1억 달러 이상 차관 도입 기업은 한진, 현대, 한일합섬, 선경, 쌍용, 효성, 신진 등이며 5천만 달러 이상 차관 도입 기업은 럭키, 코오롱, 신동아, 제동산업, 대한유화, 기아산업, 삼성, 대우 등이었다.<sup>02)</sup>

## 2. 수출 지원조치

이 시기 정부는 수출 기업들에게 막대한 금융상 혜택, 조세 감면, 환율 인하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60~1980년대 약 20년간 동안 일반 금리는 14~26%인데 비해 수출 금융 금리는 6~15%에 지나지 않았다.<sup>03)</sup> 그리고 여러 관세의 면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 절상에 따른 자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신장시켜 수출의 증대를 꾀하였다. 이 같은 수출 지원 정책으로 수출 실적이 증대하였고 수출 상품 또한 그 분야가 변화하였다(면직물, 스웨터, 가발 → 중화학 제품).

## 3. 중화학 공업 정책

이 시기 세계 경제의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국내 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공업 위주의 생산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경공업 위주 생산 구조에서 중화학공업 위주의 생산 구조로 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과 같은 산업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한국 경제의 두 기둥(전통 산업과 IT 산업) 중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 후반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각화된 사업 구조와 소유와 경영이 집중된 가족 중심적인 지배 구조의 특징을 가진 재벌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은 각각 1969년, 1967년, 1968년 창립하였으며 본격적인 생산 활동은 1970년대에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의 1965년 65:35, 1970년 57:43, 1975년 50:50으로 점차적으로 중공업의 비중이 높아져 갔다.<sup>04)</sup>

02) 김영래, 『한국기업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1876~1979년』,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5.

03) 한국은행 자료 제공.

0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조』, 1989.

#### 4. 기업의 대규모화와 독과점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각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유통 활동의 효율성, 활성화를 위해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삼성물산, 대우, 쌍용, 국제상사, 한일합성, 효성물산, 반도상사, 선경, 삼화 등의 종합무역상사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들 대기업들은 종합 상사를 중심으로 합작, 매수, 계열화를 진행하여 소위 대기업 집단의 약진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 시기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정부의 비호 아래 독과점을 실현하였다. 삼성의 경우, 제일제당을 설립하여 설탕을 독점하여 자본을 축적하였고, 럭키금성의 경우 럭키공업사를 설립하여 화장품의 주요 품목인 크림의 원료, 치약, 플라스틱 제품 등을 독과점 하였으며, 한국화약은 화약을 독점하여 기업의 기반을 굳혔다.<sup>05)</sup> 이 시기는 또한 베트남전쟁 이후 대규모의 동남아, 중동 지역 건설 수주로 인해 소위 '단군 경기'라 불리는 호景기를 맞았다.

하지만 목포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1970년대 초의 목포는 목포를 대표하던 기업체의 도산, 부두 경제의 불황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이면서 출발한다. 이런 전반적 저발전과 함께 1960~1970년대의 목포는 시역의 확대로 농촌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오히려 1차 산업의 비중이 커졌다.<sup>06)</sup>

표 1 목포시 산업별 취업 구조 추이

(단위: 명, %)

	1940		1960		1970		1980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차산업	2,736	4.2	1,555	5.4	8,370	17.4	6,759	13.3
2차산업	6,991	10.7	1,674	5.9	4,994	10.4	12,702	25.0
3차산업	55,842	85.1	25,314	88.7	34,550	72.2	31,378	61.8
취업인구	-	-	28,545	-	47,914	-	50,839	-
총인구	65,572	-	128,985	-	165,908	-	203,104	-

목포항의 물동량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최고 13만t이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예상된 물량이 겨우 6만 6천여 t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실제로는 수ちに 훨씬 미치지 못하여 부두 노동자들은 인천 등 다른 항구로 이주해 갔다. 당시 목포에서 광주까지는 화차 배정이 없이 트럭이 직접 운송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05) 대한상공회의소, 『독과점규제의 경제적 효과』, 1977.

06) 정근식, 앞의 글, 363~371쪽.

조작비 수입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무역상의 불황은 목포의 도정업에 영향을 미쳐 당시 휴업 및 폐업하는 수가 증가했다. 1970년대 초반 목포의 수산업의 주요 과제는 장비의 현대화였는데,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이런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관내 1,759척의 어선 거의가 5t급 미만의 낚은 소형 목조 어선'이었고 원양 어업에 필수적인 무선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sup>07)</sup> 이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전업하는 경향이 많았다. 1970년대 초반 어업 종사 호수가 급속하게 줄었다.

1969년에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회복세가 작용한 시기여서 업체수와 종업원수가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특히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음식료품 제조업과 섬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된 1977년에는 업체수는 1969년에 비해 별 차이가 없으나 종업원수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되어 기업이 점차 거대화해 간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비금속광물 제조업 중 토석(土石)과 유리제조업은 1969년 1기업 당 종업원수가 54.5인이던 것이 1971년에는 226.3인으로 증가하여 기업이 근대화 내지 거대화해졌다. 그러나 업체수나 종업원수에 있어서 주종을 이루는 제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으로서 각각의 구성비가 38.7%, 34.6%를 차지하여 1969년의 침체를 벗어났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목포시 제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 및 섬유 제조업을 시발로 하여 제조업이 형성되었으나 섬유 제조업은 점차 쇠퇴해지고 있으며 후발 제조업으로 등장한 비금속광물 제조업 중 도자기 제조업이 풍부한 자연자원의 뒷받침을 받아 성장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체 구성면에서 음식료품 제조업과 섬유 제조업 부문이 전체 제조업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제1차 금속제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 제2절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목포권을 포함한 개발계획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영산강 유역의 개발계획으로 나타난다. 영산강유역 개발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에 처음 제기되었다. 3단계 공사로 이루어진 영산강유역개발계획은 영산강 상류(광주)에 댐을 건설하는 것과 영산강 범람을 막는 농업용수로의 개발, 그리고 영산강하구언의 건설로 이어진다. 전라남도 건설국의 처음 계획을 보자면, ① 개척 사업 추진, ② 토지이용도 증진, ③ 목포 중심의 공업지 조성, ④ 수산기지 형성, ⑤ 교통 운수·시설 개선, ⑥ 과잉 농촌 인구의 공업 인구화, ⑦ 임야 보호에 의한 홍수 방제 등 7개 사업 목표를 세우고 개척 사업에서는 목포 영산강 지역과 무안

07) 『전남매일』 1972. 06. 10.

만 지역 및 해남 지역 3개소의 444km<sup>2</sup>(44,763정보)를 개척하고, 이 중 267km<sup>2</sup>(26,921정보)를 개답기로 했다. 토지이용사업에 있어서는 관개개선 369km<sup>2</sup>, 농업지 및 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목포를 무안반도와 영암반도 말단부 일대까지 확장하여 1차적으로 인구 45만 명, 2차적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공업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었다. 이러한 영산강 유역 개발은 1종 항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문제, 식수난의 해결 그리고 목포공단의 설립을 위한 공업용수의 확보와 관광 산업의 개발이라는 이해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목포의 경제적 침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공업단지의 건설이다. 이에 따라 목포공단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의 일환으로 1969년에 무안군 이로면 하당지구에 비로소 목포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공사는 하당지구 69만여 평의 매립을 통해 목포공업단지를 조성할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매립 공사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전라남도 당국이나 목포시를 비롯한 행정기구는 이 공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 제3절 부문별 기업 실태와 목포를 이끈 기업

#### 1. 음·식료품공업

목포시 성립기에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농산물 가공업 분야인 도정업과 제분 및 제면업이 아직도 규모는 적으나 업체수에는 우위를 점하였다. 종업원 규모에 있어서 임해 지역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해산물 가공업과 주류 제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업이 규모에 있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해산물 가공과 관련이 있는 업종은 중소기업 수준이어서 중소기업 구성비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기준 대기업은 1개소로 주류 제조업인 보해양조이며 희석 소주와 청주를 생산했다.

##### 1) 보해양조

1950년 2월 18일 임광행이 청주와 탁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을 인수하고 잡화점 광림상회의 '광림'을 따와 '광림주조장'이라고 명명했다. 6·25 전쟁 이후 도수가 높은 소주를 즐겨 찾는 월남한 피난민이 급증한 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음주 효과를 보려는 애주가들의 성향 때문에 소주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호황을 맞아 청주 생산과는 별도로 소주공장을 신설하였다.<sup>08)</sup> 1954년 5월 6일 광림주조장

08) 오성동, 「한국 소주산업발전을 위한 사적 고가」, 『경영사학』18-1, 한국경영사학회, 2003, 184쪽.

은 소주를 제조·생산하는 개인 기업에서 1956년 법인체로 변경되었다. 목포시 대안동 15번지에 공장 대지 4,628.12㎡, 건평 3,169.93㎡의 건물을 갖추고 1955년 삼화양조주식회사, 12월 보화양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31일 보화양조는 상호를 최종 보해양조주식회사로 변경했다. 1960년대 들어 더욱 의욕적으로 사업 역량을 발휘한 보해는 삼학양조 도산 후 목포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청주, 합성 청주와 주정을 제조, 판매했다. 1967년 연간 순 매출액 7억 6천만 원의 실적을 거두어 국내 주류업계 3대 제조업체의 위치를 확보하였고 서울 50%, 호남 35%, 영남 10%, 기타 5%로 전국적인 영업권역을 형성하였다. 1968년 부도 사태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나 약 9년 동안의 은행 관리 기간 중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 1976년 12월 정리 계획에 의거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은행 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루었다. 1978년 연간 7,500t 생산 규모의 매실주 공장을 설립했고 원료의 적기 공급으로 창립 30주년인 1982년 보해양조가 빚은 첫 매실주 '매취'가 탄생했다. 그 성장과정을 통해 목포의 대표적 5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2) 삼학양조

1950년경 김상두가 목포에서 창업한 삼학양조는 1970년대 한때 기업 순위 61위로 한국 100대 기업에 들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국민주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삼학소주는 시장 점유율이 60~70%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1971년 4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운을 맞는다. 삼학양조의 전신은 목포양주(주)로 1929년 차남진과 김상섭 등이 창립했다. 후에 김상두가 인수하여 상호를 삼학양조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소주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1960년대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곡물 주정을 주원료로 하던 증류식 소주를 개발하여 단번에 막걸리를 제치고 서민의 대표 술로 자리를 잡게 된다. 1945년 해방 당시 우리나라 최대 소주업체는 명성이라는 회사였다. 여기에 서광(현 진로), 백마, 백양, 청로, 새나라, 미성, 옥로, 제비원 등의 비슷한 규모의 업체가 군웅할거하고 있었다. 1964년에는 555개로 소주업체가 줄었는데 그 후 증류주였던 소주를 희석주로 만들어 내면서 제일 크게 부상했던 업체는 목포에서 청주를 만들던 삼학양조이다. 삼학은 1957년 서울로 진출하면서 희석식 소주를 만들고 1967년부터 소주 시장을 석권했다. 1971년 후반에 납세 증지 위조 사건이라는 세무사찰을 받아 힘들게 명맥을 유지하다 1980년에 끝내 문을 닫게 되었다.

## 3) 한국제분

1956년 9월 한국동아제분 목포공장에서 가동에 들어간 한국제분 목포공장은 6·25 전쟁 후 절대적으

로 부족했던 쌀을 대신해 대체 식량으로 ‘밀’을 제분해서 시장에 공급한 회사이다. 1960~1970년대 대대적인 간척사업으로 부유지가 된 삼학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석탄, 밀가루 등을 내륙으로 실어 나르는 전초기지였다. 섬 외곽에 부두가 생기고, 한국제분공장도 들어섰다. 부두와 공장에서 목포역까지 물자를 운반하던 철로인 삼학도선(線)이 놓인 것도 이 무렵이다. 한때 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등 목포의 중추적인 기업으로 목포의 대표적 5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2. 섬유 의복 및 피혁 제조업

목포시 초기에 농산물 가공업과 같이 등장했던 목화의 제1차 가공업은 거의 몰락하고 화학섬유 계통의 제조업이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이었다. 대부분의 업체가 규모에 있어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도 극히 미약한 편이었다. 다만 어망제조업체인 남양어망공업만이 대규모 경영으로 이 업종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었다.

### ○ 남양어망

1960년 자본금 200만 원으로 남양어망공업(주)로 창설되어 1963년 무역업으로 등록하였고 1975년 목포공장을 준공하였다. 원양 트롤, 선망, 해태망, 해태건조기 등 수산 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1977년 기업 공개를 하였다. 1973년 대형어망의 국산 대체에 성공하였고 1979년 기준 해외에 7개의 지사를 설립하였다. 1977년 매출 백억 원을 넘어섰으며 당시 매년 매출 70% 이상 성장,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수출이었다. 1990년 8월 남양어망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5년과 1997년에 미국지사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목포의 대표적 5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수산업계의 어망 수요 감소에 따른 주력 사업 부진과 공장 건설, 해외 투자 등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목포시 제조업 중 가장 번성한 업종이 바로 도자기 제조업이었다. 해방 전부터 싹트기 시작한 이 부문은 주변의 풍부한 부존자원에 힘입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행남사와 행남특수도기, 전국 굴지의 조선내화 화학공업을 비롯한 여타 도자기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업체수에 있어서는 목포시 전 제조업 비중이 당시 1960년대 6%에 불과하나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30% 이상을 차지하여 종업원 규모를 고려할 때 목포시 고용측면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 기업이었다. 특히 도자기 제조업 부문과 내화연와 제조업 부문은

종업원 규모가 평균 300명 수준을 넘고 있어 대기업화되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도자기와 내화연와 등을 들 수 있으며 해외 수출도 추진했다.

#### 1) 조선내화

조선내화의 전신은 1938년 일본인 사토가 설립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로, 1947년 손용기 등이 미 군정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새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1953년 한국 전쟁 후 가동이 중단된 회사를 이훈동이 인수, 조선내화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이후 대규모 공사를 거쳐 1953년 60t급 1호 가마에서 1954년에는 70t급 2호 가마까지 운영하게 됐다. 1955년에는 설비 복구 작업과 병행해 설비 증설도 시작했다. 상공부에 의해 특선 전기를 배정 받아 공장을 복구하였고 생산력 증가에 도움을 받아 설비를 증설했다. 분쇄기, 토련기, 프릭션 프레스 도입 등 공장의 기계화를 통해 공장 인수 6년 후인 1950년대 말쯤에 연간 1만 5천 t을 생산해 넘으로써 6·25 전쟁 이전의 생산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목포의 대표적 5대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 2) 행남자기

1942년 목포시 산정동에 행남사란 이름으로 김창훈에 의해 창업한 행남자기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거듭되는 성장을 이루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본차이나 제품을 자체 개발했고, 1972년에는 제2공장, 1978년에 제3공장을, 1984년에 제4공장, 1985년에 제5공장을 준공하였다. 1957년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본차이나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1963년, 홍콩에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수출 2억 5천만 불의 실적을 올려 국내 도자기 업계 수출 1위 업체를 기록하기도 했다. 1974년 행남특수도기라는 수출 전문 법인을 만들고 ‘스톤웨어’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후 목포의 대표적 5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4. 제재 목제품 및 가구 제조업

이 업종 전체 업체 수 44개소 중 종업원 1~4명인 업체가 65.9%를 차지하며 9명 이하는 97.7%를 점해 영세 가내제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부문 제조업이 이렇게 낙후된 요인으로서는 먼저 선행 조선이 목재에서 강선화해 가는 데 큰 이유가 있겠으나 더 큰 이유는 국내 수출 상품의 주류를 이루었던 합판 제조업이 미진하였던 것에 있었다.



## 5. 지류 동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

이 부문 제조업의 주요 생산품은 상품 포장용 골판지 및 상품 포장용 상자를 제조하는 정도여서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고급화에도 문제가 있었다.

## 6.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이 부문 제조업 규모는 영세기업 수준을 탈피하여 중소기업 수준의 규모로 성장한 업체가 있었으며 호남고무산업과 같은 대기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석유, 관련 화학계통 제조업은 거의 전무하며 타 지역에 비해 이 부문의 공업화 진전속도가 늦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는 제조업 낙후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주요 생산품은 고무신, 운동화 정도에 불과하며 중화학공업 제품의 총칭인 석유관련 제품은 전무하였다.

## 7.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이 부문의 목포시 제조업은 순수한 의미에서 생산 제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수리 제조업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임해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선과 관련이 있는 원동기 제작 수리나 조선 및 선박 수리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고급 인력이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정밀 전자공업 부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종업원 규모에 있어서도 9명 이하의 업체 수가 80.5%를 점하고 있으며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단 하나도 없어 이 부문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소형 선박과 운송용 장비 생산이 주류를 이루며 원동기 및 모터 재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 목포조선공업

1943년 목포조선철공 주식회사로 출발한 이 회사는 현재 중소형 전문 건조 조선소로 역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표이사 최권주가 취임 후에는 목포조선공업(주)로 상호변경하고 조선조기사업 등록 취득, G/T 1,000t급 미만 조선사업 등록 획득, 이어서 G/T 3,000t급 미만 조선사업 등록을 획득하여 소형선 건조 전문 조선소로 특화하여 운영하였다.



## 8. 기타 제조업

목포시의 기타 제조업은 종업원 규모나 업체수가 생산품에 있어서 거의 무시될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부문에 속하는 전 제조업의 규모가 9명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가내수공업 수준이며 1970년대 당시 목포시 전 제조업체 수 500개소 중 겨우 3% 정도를 점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종업원수 구성비는 1% 미만으로 나타나 고용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업종이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목포시 부문별 제조업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부문 9개 부문 중 8개 부문에 걸쳐 분산된 전 제조업은 종업원 규모에 있어서 도자기 제품 제조업을 제외한다면 영세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조업 발달의 기초가 되는 기초 공업, 즉 철강업과 석유관련 화학공업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다만 목포시 제조업의 명맥을 이어주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관계 업종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중 도자기 제조업과 내화연와 제조업 정도였다.

## 9. 새로 출점한 금융기관과 지역은행의 등장

### 1)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은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 동원을 위해 외자 도입이 본격화되고 수출을 통한 국민 경제의 자립 달성이라는 정부의 장기 개발 계획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1967년 1월 30일에 설립되었다. 대외 거래가 격증하기 시작하자 외국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외국환업무와 화물금융업무가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간에 이원화되어 있던 당시의 금융체제로는 이를 전담하기 어려워 외국환업무와 무역금융업무를 전담할 외국환전담은행 설립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목포 시내에 한국외환은행 지점이 설립된 것은 1983년 10월 29일이었다.

### 2) 서울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은 1959년 12월 1일에 순수한 민간 자본에 의하여 최초의 지방 은행으로 설립된 서울은행과 1968년 12월 2일에 창립된 한국신탁은행을 1976년 8월 5일에 흡수·합병한 것이다. 목포시에는 9월 9일에 목포지점이 최초로 개설되었고, 1976년 8월 5일 서울신탁은행 목포지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3)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1968년 9월 지방 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1967년 이후 정부의 1도 1행 원칙에 따라 총 10개의 지방은행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이었다. 1973년 2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광주은행 목포지점은 1971년 3월 23일에 설치되었고, 1980년 10월 15일 산정동에 예금취급소가 설치되었다. 이 예금취급소는 1982년 8월 3일 광주은행 산정동지점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0. 교통 및 운수 기업

1960년 목포여객의 보유 차량 3대의 버스를 이용한 여객서비스가 197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74년 시내버스회사인 태원여객의 등장은 운수 기업으로서 큰 변화였는데 보유 차량은 당시 39대에 종업원수가 244명에 달했다. 인근 시외의 경우 목포 운수의 10여대 버스가 영업 중이었고 당시 목포 시내 각 택시회사의 총 택시 대수는 140대였다. 이는 택시의 경우 1963년 56대에 비해 큰 증가라고 할 수 있으며 1970년대 이후 목포 시민들은 현재와 비슷한 택시 및 시내버스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해상 운송의 경우 1963년 목포와 제주 간을 운행하는 가야호가 취항했는데, 이 배는 당시 500t으로 승객 442명, 화물 200t의 수용이 가능한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1977년에는 남해고속에 의해 최초로 고속수중익선이라는 남해호가 목포에서 홍도 간 취항을 시작해서 여객선의 대형화, 고속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표 2 여객선박업체 (1980년 초)

	회사명	대표자	기항지
1	동양고속	이민덕	목포 기점 제주
2	한국기훼리(가야호)	윤병환	목포 기점 제주
3	서울기훼리(안성호)	윤병환	목포 기점 제주
4	대흥상사	성용산	목포-흑산, 홍도, 연안
5	남해고속	나광연	목포-흑산, 홍도
6	대양운수	김영남	목포 연안
7	한양해운	주영일	목포 연안
8	신진해운	문순례	목포 연안
9	해남운수	유영환	목포 연안
10	옥소해운	박도영	목포 연안
11	조양운수	김영철	목포 연안

출전: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1985.

## 제4절 지역 경제의 이슈들: 삼학양조의 파산과 목포공단 조성

1970년대 초반 목포의 경제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삼학양조의 파산이었다. 이것은 단지 지역 경제적 의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당시 삼학양조는 연간 5억 원의 세금을 내는 기업으로 지방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기업은 1950년 김상두가 인수하여 소주 및 정종(청주)을 생산하였으며, 전국 주류업계에서 상위에 랭크될 만큼 유망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1971년 10월 탈세 혐의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기업운영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4억 원의 은행 채무와 수천만 원의 사채로 재정 고갈을 겪었고 계속되는 불경기로 1972년 5월에 파산하였다.<sup>99)</sup> 당시 언론에도 공공연히 보도되었듯이, 삼학양조의 파산은 외견상으로는 탈세 사건이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당시 목포의 불경기는 매우 심각하여 부도 수표가 남발했고 휴폐업 업체가 대량으로 발생했다.<sup>10)</sup> 이러한 불황은 제1차 오일 쇼크의 영향이라는 경기적 측면에다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던 호남의 저발전구조가 겹쳐지면서 심화된 것이었다.

1972년 목포공단에 최초로 입주한 업체는 환삼기업이었다. 미역, 김 등 해산물과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을 가공하여 생선포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남자 30명, 여자 220명, 총 250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업체였다.<sup>11)</sup> 그러나 목포공단의 입주는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1973년에 목포시 당국은 목포시장을 비롯한 교섭단을 구성하여 일본까지 파견하는 등 목포공단의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목포공단과 교섭한 일본 중소기업들은 불꽃놀이 화약제조공장, 패류 및 통조림공장, 가구제조공장, 축산물 가공공장들로 대부분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합작 형태였다.<sup>12)</sup>

1970년대 말에 이르면 목포의 경제적 지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추락한 상태가 되었다. 전국 3대 항 또는 8대 도시이던 목포는 도시 규모나 경제력의 측면에서 '3급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예컨대 “호남선에 새로 생긴 새마을호도 목포는 외면한 채 광주를 종착역으로 삼고 있다.”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목포의 산업 구조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1970년대에 비교할 때, 1980년대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은 약간 감소한 반면, 2차 산업은 25%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3차 산업은 동 기간에 10%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3차 산업의 종사자의 구성비가 컸다.

09) 『전남매일』 1972. 05. 30.

10) 『전남매일』 1971. 0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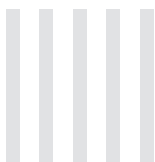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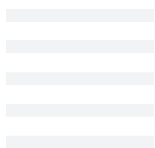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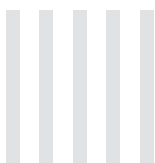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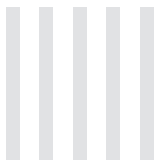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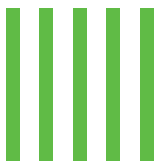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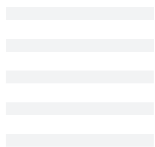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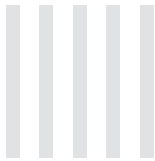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11) 『전남매일』 1972. 08. 01.

12) 『전남매일』 1973. 02. 01.

## 제5절 목포상공회의소의 운영과 5대 기업인

제5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1964년 대표적 지역기업인 조선내화의 이훈동이 선임되었고 이후 제12대까지 20년간 재임하였다. 이어 제12~14대까지 7년간 남양어망의 홍순기, 제14~16대인 2000년까지는 보해양조의 임광행이 목포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활약하였는데 대표적인 지역 5대 기업인들이 이 시기 목포 경제의 주축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1절 대불국가산단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2절 조선업종의 도약 및 조선 대표기업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3절 사라지는 기업, 도약하는 기업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4절 교통 및 운수기업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5장 1988년대 이후 목포 경제의 발전기

국토의 동남해안에 편재된 한국의 공업 지역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전남의 남해안을 따라 확산되기 시작했다. 광양만의 광양제철의 건설은 전남의 공업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런 움직임이 서남해안으로 파급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이것은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목포 경제의 전반적 침체 분위기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표현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 냉전체제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서남해안권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이런 변화를 몰고 온 자극제로 작용하였다. 이런 전반적 정세의 변화가 정치적으로 반영된 것은 1987년의 대통령선거 국면이었다. 군부 지배 블록은 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지역주의적 프로젝트에 따라 야당 세력을 분열시키면서 호남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서해안 시대’라는 선거 구호를 만들어냈다.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안산만, 군산-장항 지역, 그리고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목포의 대불공단 등 서해안 지역의 개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교적 모호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제시된 ‘서해안’의 구체적 대상 지역에 대하여 호남 주민은 보다 명시적으로 ‘서남해안’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여하튼 목포는 서해안 시대, 또는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발전전략의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남동부 지역과의 교역의 확대, 서남해안 관광 개발 등을 통하여, 목포는 약 50년간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에도, 서해안 시대의 개막이라는 구호로 표현되어지는 서남권 개발 계획은 19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소외 지역권으로 남아있던 목포권이 중국과의 수교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대중적 기대에 부응한 것이 1989년 착공된 대불공업단지이다. 632만 평의 대불공단 조성은 전북의 군장공단과 함께 서해

안 시대 개발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대불공단에는 12선좌의 공업항을 건설해 임해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목포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5선좌만 건설하고 나머지 3천~5천t급의 8선좌는 목포 허사도와 영암 가지도 사이 앞바다에 신외항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목포시는 대불공단의 배후 도시로서 지원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도심 건설도 계획하였다. 신도심 건설은 7년에 걸쳐 하당 매립 옥암지구 230만 평에 총 2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는 '21세기의 목포'를 위한 계획이었다. 대불공단의 조성이 완료되면서 대두한 문제는 이 공단에 입주할 업체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 중심적 자원분배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생산 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선뜻 여기에 입주하려 하지 않았다. 대규모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신외항이나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건설은 이런 맥락에서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다행히 한라그룹이 대불공단에 입주하여 이런 어려움을 털어 주었다. 따라서 1980년대 목포 경제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대불국가산단의 조성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이전일 것이다.

## 제1절 대불국가산단

서해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988년 7월에 산업 기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989년 9월 착공된 1단계 공사는 1992년 5월에 공단 조성이 완료되었다. 1990년 8월에 착공된 2단계 공사는 1994년 5월에 조성이 완료되었다. 단지별 입지 특성은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해 유발의 가능성이 큰 화학, 석유 등의 업종은 북측의 항만 주변에 배치되었고, 공해가 적고 원료 수송의 문제가 크지 않은 기계, 조립 금속 등의 업종은 내측에, 그리고 경공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진입부 등에 배치한 점이다.

단지 내 입주 업종은 기계, 제강, 석유화학, 제지 및 기타 업종이며 염색, 피혁, 염료, 주물, 도금업 등은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가 제한되었다. 입주 당시 입주 업체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함께 금융 지원 혜택도 주었다. 목포항과는 6k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불항도 조성되었다. 배후 지역으로는 10km 거리에 산정, 삼진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배후 지역과 함께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기대를 가지고 조성되었다. 국가 산단으로 조성된 대불산단은 조성 후 15년간 분양률을 30%도 넘기지 못하다가 한라중공업이 인근에 들어서면서 잡초만 무성하던 공단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어서 대불산단에 한라중공업의 협력사가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한때 중소기업의 80%는 한라중공업의 협력사였다. 50개 협력회사를 대불산단에 유치하면서 갯벌과 농지로 둘러싸였던 인근 지역도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이러한 대형 중공업이 연간 대불산단 내 협력사에 3,000억 원, 전남권 협력 회사에 3,0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각각 발주하면서 파급 효과가 전남 서남권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초기 입주단계의 대표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한세라믹스

1989년 대불공단 기공 이후 1991년 최초로 입주한 대한세라믹스는 조선내화가 지분 16.9%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상호 출자 관계에 있다. 조선내화는 총 10개가 넘는 국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는 국내 4개, 해외 7개로 구성돼 있다. 해외 계열사는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내화물 제조 법인이다. 주로 현지 법인과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조선내화의 주요 원료를 생산하는 대한세라믹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내화물 원료인 소결 알루미늄과 소결 스피넬을 국산화했다. 요업원료 제조사인 (주)대한세라믹스(대표: 이학)는 영암대불국가산단 4,000㎡ 부지에 155억 원을 투자해 내화재 원료인 타블라 알루미늄(Tabular Alumina) 등을 제조했다. 연간 2만t 규모의 타블라 알루미늄 제조 시설 등 핵심설비는 독일에서 들여왔다. 타블라 알루미늄은 가소 알루미늄을 1,800℃ 이상 고온으로 소성해 치밀화 시킨 99.5% 이상의 고순도 소결 알루미늄이다.

## 2. 한국종합화학

대한민국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1961년 설립된 충주비료(1비, 당시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소재)와 1963년 설립된 호남비료(2비, 당시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 송월리 소재)가 1973년 합병한 회사로, 출범 당시부터 1980년까지는 요소 비료를 생산하는 한편, 지주 회사로서 산하에 비료회사 및 석유화학, 알코올 제조회사를 설립 및 경영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수산화 알루미늄을 독점 생산, 공급하였다. 1996년 2월 대불산업단지에 수산화 알루미늄 공장을 준공한다. 하지만 한국종합화학은 1996년 「한국종합화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수산화 알루미늄 제조업체였고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98.75%)로 참여했으며, 관리 경영은 산업자원부가 했다. 그러나 준공 이후 과도한 5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자본금 8백억 원을 모두 까먹는 등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2001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그 후 2001년 6월 청산되며 공장부지 및 건물은 대주중공업에 매각, 한국화학(현 KC)으로 재창립된다. 지난 2001년 부실 공기업이던 한국종합화학을 인수해 KC(주)를 출범, 거대 일본 업체와 경쟁하면서 원가절감, 공정 개선을 이뤄냈고 공격적 설비 투자를 통해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그 결과 2008~2009년에는 총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하며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



### 3. 한라제지(보워터 한라제지)

1994년 한라제지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1995년 대불공장에 기공, 1996년에 생산을 시작한 회사로 1998년 다국적 제지업체인 미국 보워터사가 한라제지를 인수해 '보워터 한라제지(주)'로 상호를 변경했다. 2007년에는 '아이비티 보워터 코리아 유한회사'로 다시 상호를 바꾸었다. 생산 품목은 신문 용지로 생산용량은 연 25만 톤이며, 부지는 206,000㎡이다. 한때 목포대불공장 옆에 6만 평의 대지를 구입해 생산시설을 늘릴 계획도 세웠으나 정리하고 철화와 경영권 참여를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과 미국 경기 침체로 투자 계획을 철회하였다. 국내 신문용지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제2절 조선업종의 도약 및 조선 대표기업

### 1. 영암 삼호지방공단과 현대삼호중공업

한라중공업이 조성한 영암 삼호지방공단은 대불산단과 함께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공단이 되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첫째 동생인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이 1977년 설립한 한라그룹 계열사 한라중공업에서 시작한다. 한라중공업은 1992년부터 영암군 삼호면 용당·삼포리 일대에 792만㎡ 규모의 한라조선소를 만들었으며 도크 등 조선 시설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선박 건조에 들어갔다. 한라중공업은 삼호지방공단에 2,020억 원을 투입해 조선소를 비롯하여 선박 관련 업체 등 40여 개 업체를 입주시켜 국내 제일의 조선소를 만든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추진했고, 1995년에는 고용 인원이 4만 명에 이르러 낙후된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회사의 시작은 1977년 인천조선의 설립이었고, 1990년에 한라중공업으로 사명을 바꾸었다. 이후 본거지인 인천 쪽을 대신해 지가도 싸고 개발 가능성도 있던 영암군 삼호면(이후 삼호읍으로 승격)의 부지에 새 조선소를 짓고 1996년 첫 호선을 건조하며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가 되었다. 현재의 회사 이름은 현대삼호중공업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의 역사는 1997년 IMF 사태 당시 삼호조선소 투자에 대한 연대책무 등으로 한라그룹이 부도처리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고용 인원이 많은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5년간 위탁경영 후 회생되어 매각한다면 우선협상자로 지정해준다는 조건 하에 현대중공업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1998년 가교회사인 RH중공업을 만들어 기존 한라중공업의 연대보증 등을 제외한 삼호조선소의 자산만을 이전 세탁시키고 기존 한라중공업 법인은 청산하였다. 1999년 사명을 소재지인 삼호읍에서 판 삼호중공업으로 변경하였다. 2002년 위탁경영 종료 후 현대중공업에서 정식 인수하였고, 같은해에 출범한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되었다. 2003년 현재의 사명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되었다. 2015년 현재 정몽

준-(10.15%)→현대중공업-(94.92%)→현대삼호중공업-(43.51%)→현대미포조선-(7.98%)→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현대중공업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한축이 되었다. 그런데 초기 이 조선소의 지역 내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너무 컸기에 심지어 임직원들의 주 생활권인 목포에서조차도 한라중공업이던 시기보다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서의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는데도 2017년 현재까지도 이 회사를 '한라중공업'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원아파트 쪽에 있는 오래된 가게들은 아직도 '한라XX' 등의 상호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호남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대기업이기도 하다. 광주광역시의 기아자동차도 1본사 소재지는 아니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는 호남 지방에 본사까지 둔 케이스로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목포시와 영암군에 1년에 임금으로만 7,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풀어 놓고 있다. 비어있던 대불공단을 협력사 및 관련 회사들로 가득 채우고 영암군에서도 가장 변방이었던 삼호면을 읍으로 승격시킨 일등공신이기도 하는 등 지역 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포 및 서남권 지역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은 내수 진작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난 1990년대 말까지 대기업이 전무했던 전남 서남권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입주하면서 지역 경제도 탈바꿈했다. 고용 효과도 새로 출범한 지난 1999년 3,300명에서 이미 1만 명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지난 1999년 새 출범 후 매년 평균 30%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해 왔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한라조선소의 부도로부터 세계적 조선소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10여 년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 1997년 외환 위기와 회사 부도 후 파업은 극에 달했다. 당시 6,000여 명이던 직원의 절반은 회사를 떠났다. 주주 잔량도 7척으로 툭 떨어졌다. 최악의 위기를 겪고, 2년 뒤 현대중공업이 위탁경영에 들어간 이후 변화는 크고 빨랐다. 이후 조선 시장 최대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업계 사상 최단기간 1000만 DWT 선박 건조 기록을 세우는 등 성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초창기 벌크선과 탱크선 등 범용 선박을 건조하다가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이 중심이 되었고 2004년 현대중공업에서 넘겨받은 산업 설비 사업, 산업용 크레인, 석탄 하역 설비 등 설비 사업도 사업 영역의 중심이 되었다.

## 2. 대한조선

2004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위탁경영, 기업화생절차(법정관리) 등을 차례로 거치는 불운을 겪었다. 대주건설은 2004년 당시 법정관리 중이었던 옛 신영조선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조선업 진출을 선언했다. 2004년 8월 대한조선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했고 2005년 11월 대한조선 해남조선소를 화원 농공단지에 14.9만 m<sup>2</sup> 규모로 착공했다. 2006년 11월 170,500DWT 벌크선 4척을 첫 수주했으며 2007년 8월 1DOCK 완공(460m×72m×10m), 2008년 1호선(170,500DWT 벌크선)을 인도했다. 하지만 벌크선 운임 상승세에 따라 조선업이 동반 활황기에 접어들자 도크를 새로

짓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장밋빛 전망이 빛나가기 시작했다. 선주사들은 발주를 취소했고 자금줄이 막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닥쳤다. 정부는 2008년 조선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이 회사에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매겼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이 회사의 위탁경영을 맡아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위탁경영은 2014년 대한조선이 재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 기간에 이 회사 전환사채 발행 등에 투입한 500억 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 진출에 이어진 기업개선작업, 위탁경영, 기업회생절차 등은 대한조선이 조선업 구조조정의 '반면교사(反面教師)' 모델이 되었다.

### 제3절 사라지는 기업, 도약하는 기업

#### 1. 목포 대표 5대 기업의 몰락 및 이전

##### 1) 한국제분의 이전

1956년 9월 한국동아제분 목포공장으로 가동에 들어간 한국제분 목포공장은 2004년부터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와 이전 협상을 벌여왔으며 357억 원에 보상을 합의하고 55년 만에 목포 시대를 마감했다. 목포시는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한국제분 목포공장의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결정 당시 150여 명의 직원과 연간 22만t의 밀을 가공하고 있던 한국제분 목포공장은 2011년 목포 시대를 마감하고 충남 당진에 새 등지를 마련했다.

##### 2) 보해양조 목포공장의 이전

목포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보해양조의 목포공장이 공장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해 2011년 목포공장을 폐쇄하고 장성공장으로 통합했다. 1950년 보해 창립과 함께 가동해 온 목포공장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보해 목포공장은 지난 1991년 장성공장 가동과 함께 소주 등 주요 생산라인을 장성으로 이전하고 군납과 수출용 주류 생산, 명절 선물세트 작업 등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2011년 보해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목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폐쇄 조치여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 3) 행남자기의 주 공장 이전

목포시의 마지막 향토기업 ‘행남자기’가 목포공장 부지 매각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행남자기는 1942년 목포시 산정동에 첫 가마를 연 후 1974년 현재의 상동 부지로 이전했으나 행남자기 상동 부지 23,140㎡가 건설업체에 매각되었다. 행남자기의 부지 매각은 도자기 업종의 쇠락으로 누적된 부채와 금융 비용 등 회사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시설을 여주공장으로 이전하고 목포 연산동의 행남자기 본사까지 이전하려 했으나 선대 고 김준형 회장이 “목포에서 기업을 키웠으니 목포와 호남을 위해서도 어떠한 경우든 본사는 목포에 놓아두라.”는 유언을 지키고 지역민들도 행남자기만큼은 목포에 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목포 본사를 산정동에서 연산동으로 이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5년 대주주 등이 바뀌면서 본사까지 모두 이전하게 되었다.

### 4) 조선내화 이전

조선내화는 본사를 1994년에 광양으로 이전했다. 1947년 목포에서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조선내화는 1974년 포항공장을 준공하고, 포스코와 업무제휴를 통해 성장해 왔다. 포항공장은 SN(슬라이딩 연주용 내화물)·CCN(연속주조) 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65,085t을 생산하고 있다. 조선내화는 또 1986년에는 광양공장을 준공하고, 1993년에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했다.

### 5) 남양어망

남양어망은 지난 1994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오다가 지난 2004년 채불임금 4억 원을 해결 못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양어망의 실패는 중국투자 실패와 원양 어업의 쇠퇴 때문이었다. 또 법정관리에서 2003년에 벗어나기도 했지만, 2004년 초 증권사에서 상장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외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 2. 기타 전통 기업의 몰락

### 1) 목포조선공업

선박 건조·수리회사인 목포조선공업도 퇴출되었다. 1943년 목포조선철공으로 설립된 목포조선공업은 목포항 삼진조선단지에 위치하였다. 증소형선 건조와 수리, 선박용 블록 제작을 주 사업으로 하였으며 배

관·의장품 전문 공장인 백천기업을 계열사로 두었다. 2008년 조선 경기 불황에도 2009년에 매출 974억 원, 영업이익 128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조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10년 매출 172억 원, 영업손실 17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건조 계약이 취소되고 해운사로부터 선박 건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 11월 광주지방법원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 2) 삼호기계

1997년 최종 부도처리 된 삼호기계는 당시 삼호세라믹엔지니어링, 진남철강, 청계자기 등 4개의 계열사에 16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간 매출액 114억 원대로 향토기업으로는 중견업체였다. 당시 도자기 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도자기 생산기계 발주가 뚝 끊긴 것이 회사가 무너진 대표적 원인이었다.

## 3) C&중공업

전남 지역 중소형 조선소의 대표업체였던 C&중공업도 퇴출되었다. C&중공업은 목포의 삼진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역 신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선업은 57개 업체에서 2만 5천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연 매출만 5조 3천억 원에 달해 도내 전체 제조업의 약 34.8%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2010년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다. C&중공업의 모회사인 C&그룹이 2007년 목포신항에 석재 타운을 개장하며 목포 지역과 인연을 맺었지만 목포와의 협력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퇴출 당시 800명의 직접 고용인력과 주력 협력업체 20개사의 인력 500여 명, 납품업체 500개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 3. 도약하는 기업

### ○ 씨월드고속훼리

1998년 12월 (주)씨월드고속훼리를 재설립,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연안 해운사업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기업이다. 국내 최대·최고 시설을 갖춘 선박을 투입해 목포-제주 간 여객 100만 명 수송을 이룩한 회사이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호남고속철의 부분 완공 등으로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목포-제주 간 뱃길의 안정성 및 편리성이 개선되면서 급격히 성장한 관광 및 운송관련 기업이다. 현재의 이혁영 회장이 20대 후반인 1972년에 외삼촌이 운영하는 목포-제주 간 가야호(515t) 사무장을 맡으면서 목포와 인연을 맺었다. 그 후 회사의 CEO가 돼 경영을 해왔지만 연안 여객선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외환위기 사태

(IMF)를 앞두고 선박이 경매되는 위기 속에서 직접 회사를 인수했다. 카페리 여객선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 씨월드고속훼리를 국내 최대의 여객선 회사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KTX까지 개통되면서 여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자 2만t급 크루즈 여객선을 도입, 서비스 고급화에 나섰다. 크루즈급 여객선을 비롯해 3시간 안에 제주도로 갈 수 있는 쾌속선까지 취항시키면서 24시간 언제든지 제주도에 갈 수 있는 항로를 완성시켰다. 레저를 위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용객의 수요에 맞추어 여객선의 고속화 및 고급화가 진행되어 대형카페리선, 초고속선, 쾌속선으로 여객선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산업의 흐름의 인식과 지역의 접근성 향상이 맞물려 지역의 대표적인 도약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제4절 교통 및 운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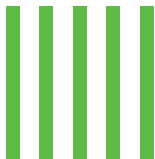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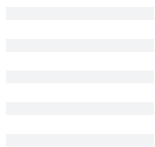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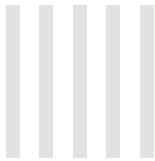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육상교통의 경우 택시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2016년 기준 9개 업체, 622대가 운행 중이고 시내버스의 경우 2개 업체에서 170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가용 보유율이 늘어나면서 버스의 경우 시 보조금에 의한 지원, 택시의 경우 감차라는 변화가 요구되었다.

해상 운송의 경우 큰 변화는 없으나 터미널의 신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은 원래 1980년 지어져 운영돼 왔으나 시설 낙후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5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2,900㎡으로 완공하였으며,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2002년 준공 후 2002년, 2006년에 목포와 중국 상하이 간 국제 항로를 개설하였으나 2007년 이후로 운휴 중이다.

표 1 여객 선박 업체(2016년)

	회사명	대표자	기항지
1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목포 기점 제주
2	남해고속	성기순	목포-흑산-홍도
3	동양고속훼리	황길연	목포-흑산-홍도
4	대흥상사	성기순	목포 연안
5	조양운수	이영규	목포 연안
6	신안해운	이종식	목포 연안
7	신진해운	이상우	목포 연안
8	해광운수	김병국	목포 연안
9	신안농협	신안농협조합장	목포 연안
10	비금농협	비금농협조합장	목포 연안
11	도초농협	도초농협조합장	목포 연안
12	남산농협	남산농협조합장	목포 연안

출전: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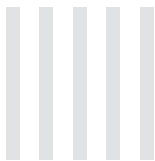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제1절 개항기 민족계 상인들의 단결에 의한 태동과 일제 강점기

박병욱 |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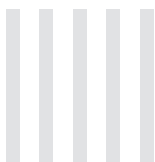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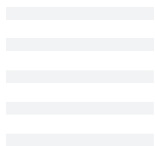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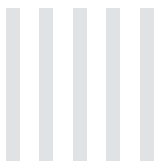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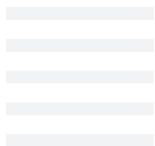
제2절 8·15 해방 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격변기

박병욱 |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제3절 1952년 상공회의소법 공포 이후

박병욱 |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 제6장 목포상공회의소 변천사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사들에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지역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목포상공회의소가 2017년에 설립 119주년을 맞이하였다.

목포상공회의소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① 개항기 민족계 상인들의 단결에 의한 태동기 및 일제 강점기, ② 8·15 해방 후 6·25 전쟁까지의 격변기, ③ 1952년 「상공회의소법」 공포 이후 현재까지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 제1절 개항기 민족계 상인들의 단결에 의한 태동과 일제 강점기

1897년 10월 1일 목포항 개항과 더불어 많은 일본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상권 확장을 위하여 각종 상업단체를 조직하였고 이에 이듬해인 1898년(광무 2) 목포의 민족계 상인들은 목포상객주회(木浦商客主會)<sup>01)</sup>를 조직하여 일본인 상인단체와 맞서게 되었으며, 그 후 목포상객주회는 1901년 무안사상회사(務安士商會社)로 개칭<sup>02)</sup>되면서 목포에 있어 최초의 근대적 상업회의소가 되었다. 목포사상회사는 조선 상인의 단결을 위하여 자주 회합을 하고 상업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상거래에 있어서의 일본 상인과의 분규를 조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01) 한성상업회의소 1884년, 인천객주회 1885년, 부산객주상법회사 1889년, 목포상객주회 1898년 설립.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2016. 12. 08.), 인천상공회의소(<http://www.incham.net>, 2016. 12. 08.), 부산상공회의소(<http://www.bcci.or.kr>, 2016. 12. 08.), 목포상공회의소(<http://mokpocci.korcham.net>, 2016. 12. 08)

02) 김정섭 옮김,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409쪽, 413쪽, 418쪽에 실린 목포일본인상업회의소 회두에 보낸 문서의 대표자를 보면 ① 1900년 3월 17일 목포항상객주회장 박창규(朴昌圭), ② 1901년 1월 22일 상객주회장 유정여(劉貞汝), ③ 1901년 12월 31일 사상회사(士商會社) 회장 박창규(朴昌圭)를 볼 때 1901년에 사상회사로 개칭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목포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은 개항 후 주로 수출무역 종사자 중심의 목포상화회(木浦商話會), 조합원 상호간 친목과 수요자의 편리를 위한 목적의 잡화상조합(雜貨商組合), 소매인 중심의 소매조합(小賣組合) 등의 여러 상인단체를 조직하고 있다가 1900년 1월 25일 이들 단체를 기반으로 목포일본인상업회의소를 설립, 1910년 9월 15일 목포상업회의소로 개칭하여 한국인 상인단체인 무안사상회사와 경쟁하다 1915년 공포된 「조선상업회의소령」에 의하여 두 단체가 해산<sup>03)</sup>되고 이듬해인 1916년 6월 17일 양측 상인을 포함하는 목포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sup>04)</sup>

당시의 처리 업무<sup>05)</sup>는 ① 상업의 발달이익 증진, ② 관청에의 의견 구신(具申), ③ 상황 및 통계의 보고, ④ 공적 영조물 등의 위임 관리, ⑤ 분쟁의 중재, ⑥ 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일, ⑦ 위촉에 의한 조사 및 증명, ⑧ 명령에 의한 감정인, 참고인의 추천 등이었다.

목포상업회의소는 1930년 「조선상업회의소령」에 의하여 목포상공회의소로 개칭되었다가 1944년 「조선상공경제회령」에 의거 전라남도상공경제회 목포지부로 개편된 후, 8·15 해방과 동시에 해산을 맞이하였다.

## 제2절 8·15 해방 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격변기

해방 후 목포의 상공인들이 조직한 목포상공협회, 목포상공조합연합회, 목포공업발전협회 등 세 단체가 모여 발기인을 선정하였고 1946년 9월 25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재창립,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초대회장에 강선명(姜善明)이 선임되었다.

일본 고베고교(神戸高校)를 졸업하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주택공사 감사역을 역임한 바 있는 강선명은 1949년 제헌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의정 활동에 뛰어들게 된다.<sup>06)</sup> 이어 1949년 8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김철진(金哲鎭)이 선임되었다. 김철진은 1930년대 목포창고금융, 동아고무, 목포양주, 호남제탄 등 아버지(초정 김성규<sup>07)</sup>) 사업을 도왔으며, 신간회 운동, 1935년 『호남평론』을 발간, 언론인으로도 활동하였고 2선의 전남도의원 활동,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의 모체가 된 목포상과대학의 설립에도

03) 당시 민족계 상인들의 유일한 실업단체였던 목포사상회사는 1915년 해산되었다가 남은 재산 400여 평의 건물을 기본자산으로 1935년 11월 30일에 주식회사 목포사상회사로 재창립하게 된다. 육영중학교와 상업전수학원으로 3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해당 건물을 재창립 후에도 계속 사용해 하였음은 목포사상회사가 민족 교육 사업에도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35. 12. 05.)

04) 김정섭, 앞의 책, 122쪽, 123쪽, 125쪽; 김정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646~648쪽;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295쪽; 목포상공회의소 소장 자료 일부를 보충, 정리하였다.

05) 김정섭, 2011, 같은 책, 650쪽.

06)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07) 초정 김성규는 극작가 김우진의 아버지이며, 농업과 사회개혁의 선구자로 고창군수, 장성군수, 무안감리를 거쳐 1905년 강원도순찰사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18년간 관직에 머물렀다(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관여하였다.<sup>08)</sup>

이후 제3대 회장에 호남매일신문(목포일보) 사장인 김문옥(金文玉)이 선임되어 의결부를 이끌었지만 6·25 전쟁으로 임기를 다하지 못했다. 김문옥은 1960년에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 제3절 1952년 상공회의소법 공포 이후

1952년 12월 법률 제274호로 「상공회의소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인 1953년 10월 31일 목포상공회의소가 법정 단체로 새로이 설립되어 1954년 1월 의결부가 구성되면서 초대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회장에 나달수(羅達洙, 조선면화(주))가 선임되었고, 1957년과 1960년에는 제2대, 제3대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김성호(金聲浩, 대성주조), 손용기(孫容基, 전남석유(주))가 각각 2대, 3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1897년 개항되어 해방되기까지 국내 3대 항 6대 도시로 변영을 누렸던 목포는 해방 이후 대일교역이 끊기면서 1950년대에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고 공업 기반도 극히 취약하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3대 의결부가 1961년 5·16 군사정변과 더불어 시행된 임시조치법에 따라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해산, 다시 제4대 의원을 선출, 회장에 손용기를 재선임하였다.

1964년 8월에 제5대 의결부가 출범하여 의원선거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의 중책을 맡고 이훈동(李勳東, 조선내화화학공업(주))이 회장으로 선임된 후, 1982년 제11대 의결부까지 2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7년과 1968년 장기간 가뭄 피해로 지역 농가는 물론 상공업계의 극심한 피해가 계속되자 상공회의소에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정부에 건의, 당시로서는 매우 큰 액수인 10억 원의 조세 감면 조치를 받아냈고 1만 5천t의 구호양곡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목포시의 숙원사업이었던 행정 구역 확장을 위해 인근 무안군과 영암군 일부 지역에 대한 흡수통합을 추진하였다.

이훈동 회장은 목포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목포에 비행장이 필요함을 직접 건의, 1969년 목포공항이 서울-제주 간 항공기의 중간 경유지로 개항되게 하였다.<sup>09)</sup>

한편 상공회의소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임시회관에서의 업무 불편이 가중되자 이훈동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1969년 11월 29일 목포시 중동2가 1번지(해안로 173번길 29)의 옛 터 717.4㎡의 대지 위에 신축 회관을 착공, 1970년 11월 15일 연면적 1,041.3㎡의 3층 회관을 준공하였다.

1980년 4월 25일에는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7개 군을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08)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09) 이훈동, 「나의 아침은 늘 새로웠다」, 새미, 2007, 278쪽.

공장 유치, 공산품 품질표시운동 전개, 국립해양목포박물관 건립, 목포-제주 간 카페리 조기 취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훈동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기부터 4기까지 10년간 광주·전남대표부 의장에 재임하였고 퇴임 이후에는 사업비 5,502억 원을 들여 1989년 조성된 대불국가 산업단지의 분양이 부진하자 1991년 대불산단 입주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한세라믹스를 설립해 입주시키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sup>10)</sup> 1985년 9월에 제12대 의결부가 구성되어 의원선거를 통해 홍순기(洪舜基, 남양어망공업(주))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1991년 제14대까지 회장직을 연임하였다.

제12대 의결부 출범 이듬해 광주직할시 승격에 따른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지역 경제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목포를 생산도시화로의 실현을 위해 영산호 인접 대불간척지에 임해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1989년 대불간척지가 대불산업기지로 건설 기공되는 역할을 하였으며, 중단된 목포공항 항공기의 재취항을 건의하여 관철시켰다. 또한 1989년 5월 24일에 영암군과 함평군을 목포상공회의소 관할구역으로 추가 편입시켰으며, 이후 목포시 인접 지역에 대한 행정 구역 조정을 위해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그 중 무안 삼향면 일부인 대양리가 목포시에 편입되었다.

이밖에도 무안망운국제공항 건설, 목포신외항 조기 건설, 호남선철도복선화 조기 착수,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건의 등 지역 경제의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1992년 8월에 홍순기 회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제14대 회장에 취임한 임광행(林廣幸, 보해양조(주))은 제15대와 제16대에도 재선임, 2000년 3월 19일까지 9년 동안 의결부를 이끌어 지역 경제 발전에 헌신했다.

임광행 회장이 이끈 의결부는 장차 서해안 시대의 중추항을 목표로 추진된 목포신외항 건설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주춤할 때 대정부 활동으로 해결하였고, 1993년 전라남도 신 도청 목포권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 중대 지역 관심 사업으로 부상됐던 전라남도 신 도청지를 목포시와 인접한 무안군 남악리로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6년 당시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계획에 삼성그룹이 1996~2001년 동안 5조 7000억 원이 투자되는 호남고속철도사업에, 금호건설, 한라건설 등이 목포권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등 목포권 개발에 재계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추진되어 왔던 목포, 무안, 신안군 등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 무안반도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목포상공회의소 내에 구성하여 통합을 주도했지만 무산됐고, 장래의 목포상공회의소 신축 회관 건립을 위해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상공회의소발전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10) 이훈동, 앞의 책, 28쪽.

당시 세계 4대 조선소의 하나인 한라중공업이 1997년 말 부도이후 1999년 법정관리를 마치고 파산 위기에 몰리자 청와대, 국회, 재정부, 금감위 등에 현대 인수를 위한 건의문을 내는 등 '한라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1999년 말 현대에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00년 2월에는 의원선거를 통해 제17대 회장에 전태홍(全泰洪, (유)남경공업사)이 선출되었다. 제17대 의결부는 당시 서남권 중대 지역 사업이었던 도청 이전 사업이 일부 정치권과 광주 지역 인사들 때문에 주춤하고 있을 때 정관계에 도청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무안반도 통합 추진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상의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기업고향만들기운동전개, 서남권경제개발연구원 개원, 목포권 관광가이드센터 개소, 현수운동 전개 등 상공회의소 4대 중점추진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목포상공대상을 신설, 매년 모범상공인을 발굴·표창했다. 이밖에도 대불산단 자유무역지정,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확대, 목포세무서 관할지역에 영암과 삼호 편입, 목포대 종합대학 승격 등 목포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태홍 회장은 임기 중 지방선거에 출마 제35대 목포시장(2002년 7월 1일~2005년 1월 12일)에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25일에 전태홍 회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제17대 회장에 국방현(鞞芳鉉, (유)초원건설)이 취임하고 이듬해 2월 제18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제18대 의결부는 열악한 상공회의소 재정 보전을 위해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상공회의소발전기금을 조성하였고,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주창, 매년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우리 지역 지식 산업 기반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 위탁 사업인 전남지식재산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정보화 기반 구축과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다하였다. 이밖에도 사무관리검정사업의 내실화, 지역상품애용캠페인, 목포미항가꾸기운동,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기업도시 서남권 유치, 지역 현안 및 기업 경영 애로 타개를 위한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2월 22일 제19대 의결부가 구성되어 의원선거를 통해 제19대 회장에 주영순(朱永順, (주)HN철강)이 선임되어 이후 제20대까지 연임했다.

제19대 의결부 출범과 동시에 전남도청의 목포권 이전으로 신도심이 개발되고, 많은 외지 건설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진출로 지역 내 부(富)의 역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지역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 존치와 지역 상품 판매 확대 등을 요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F1 특별법」 제정 청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서명 운동을 전개해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후 국회에서 「F1 특별법」이 통과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홍익상호저축은행 영업 정지에 따른 희생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 및 예금주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제20대 의결부 때는 침체되어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의 국내선 조속 이전, 환승 공항 지정, 신규 국제 노선 개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등을 주장하며 대정부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2009년 9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침을 근거로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서남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통합에 노력하였으나 무안·신안군민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한편 주영순 회장은 F1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했으며, 제21대 회장에 재연임하여 활동 중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2012년 5월 29일 임시의원총회에서 주영순 회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제21대 회장에 김호남(金虎男, 근화건설(주))이 선출되었다. 목포권 발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역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항해권발전연구원을 개원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sup>11)</sup>와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sup>12)</sup>를 개소하였다. 또한 남해안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방위산업체 유치, 항만 물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상의부설기구에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역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상의의 역할 제고를 위해 2013년에는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해운대구청과 공동으로 '태평양을 열어 장보고의 길을 가자' 토론회를 열어 목포-부산 간 고속철도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수년간 중단되고 있던 목포-보성 간 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정부에 전달(進達)하여 공사를 재개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4년에 '바다가 미래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매년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해외산업시찰단을 구성, 2014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소재 국민경제대학, 미얀마 양곤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호간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유럽산업시찰단 파견으로 프랑스 릴역 역세권개발 현장답사 등 국제협력사업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한 전남 도내 국제 행사(영암F1코리아그랑프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해 주도적으로 광주·전남상공회의소의 동참을 이끌어 적극 지원하였다.

11) 2013년 4월 26일 개소. 중장년층 퇴직(예정)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 상담, 알선,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12) 2014년 2월 3일 창립. 전남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훈련 제공.

2015년 2월 17일 제22대 의결부가 출범하여 의원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김호남 회장이 연임하게 되어 서남권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해양산업 육성을 주창하였다.

2016년에는 ‘해양산업을 키워 국제도시를 만들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크루즈선 취항과 한·중열차 페리 운항을 주창하고, 일본 오키나와 나하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나섰다.

김호남 회장은 F1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 역임,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제3대 이사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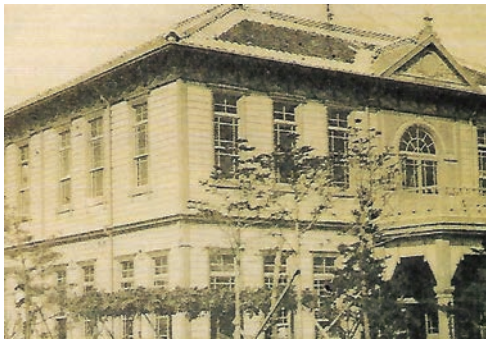


그림 1 1911년 건립된 목포공회당건물.<sup>13)</sup> 목포상업회의소가 1912년 2월 2층에 이전<sup>14)</sup>사용하다 해방 후 2층은 시의사당으로, 1층은 목포상공회의소로 사용(현 목포상공회의소 자리).<sup>15)</sup>



그림 2 1970년 11월 준공된 현재의 목포상공회의소 건물.

13)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김정섭, 2011, 앞의 책, 781쪽의 설립 연도 인용.

14) 김정섭, 1991, 앞의 책, 138쪽.

15)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같은 책, 사진과 설명 인용.



표 1 목포상공회의소 역대 회장단 명단

(1952년 12월 「상공회의소법」 공포 이후)

초대(1954. 01. 20.~1957. 01. 19.)	회장	나달수	조선면화(주)
	부회장	주남득	
	사무국장	박홍근 안작지	영풍정미소
제2대(1957. 01. 20.~1960. 01. 19.)	회장	김성호	대성주조
	부회장	오세일	세일인쇄소
	사무국장	김형기 안작지	평화산업사
제3대(1960. 01. 20.~1961. 08. 11.)	회장	손용기	전남석유(주)
	부회장	오세일	세일인쇄소
	사무국장	김병호 오태준 안작지	국민은행 목포지점 목포흥업(주)
제4대(1961. 08. 12.~1964. 08. 11.)	회장	손용기	전남석유(주)
	부회장	김윤수	조양운수(주)
	사무국장	이훈동 정일섭	조선내화학공업(주)
제5대(1964. 08. 12.~1967. 07. 11.)	회장	이훈동	조선내화학공업(주)
	부회장	오태준	목포흥업(주)
	사무국장	김윤수 정일섭	조양운수(주)
제6대(1967. 07. 12.~1970. 07. 12.)	회장	이훈동	조선내화학공업(주)
	부회장	이용우	대창목재(주)
	사무국장	나상수 정일섭	목포통운(주)
제7대(1970. 07. 13.~1973. 06. 20.)	회장	이훈동	조선내화학공업(주)
	부회장	이용우	대창목재(주)
	사무국장	나상수 정일섭	목포통운(주)
제8대(1973. 06. 21.~1976. 06. 08.)	회장	이훈동	조선내화학공업(주)
	부회장	이용우	대창목재(주)
	사무국장	나상수 정일섭	목포통운(주)
제9대(1976. 06. 09.~1979. 04. 30.)	회장	이훈동	조선내화학공업(주)
	부회장	이용우	대창목재(주)
	사무국장	나상수 정일섭	목포통운(주)
제10대(1979. 05. 01.~1982. 04. 22.)	회장	이훈동	조선내화학공업(주)
	부회장	나상수	목포통운(주)
	사무국장	권이담 정일섭	목포문화방송(주)
제11대(1982. 04. 23.~1985. 04. 12.)	회장	이훈동	조선내화학공업(주)
	부회장	홍순기	남양어망공업(주)
	사무국장	권이담 정일섭	목포문화방송(주)
제12대(1985. 04. 13.~1985. 08. 20.)	회장	이훈동	조선내화학공업(주)
	부회장	권이담	목포문화방송(주)
	사무국장	이상율 김진호	대창목재(주)

제12, 13대 (1985. 09. 02.~1991. 04. 07.)	회장 부회장	홍순기 김영철 김찬욱 김진호	남양야방공업(주) 조양운수(주) (합동공장)호남곡산
	사무국장		
제14대 (1991. 04. 08.~1992. 08. 05.)	회장 부회장	홍순기 이건일 이장용 김진호	(주)남양 목포가스(주) 태원여객운수(주)
	사무국장		
제14대 (1992. 08. 21.~1994. 04. 06.)	회장 부회장	임광행 이건일 이장용 김진호	보해양조(주) 목포가스(주) 태원여객운수(주)
	사무국장		
제15대 (1994. 04. 07.~1997. 04. 02.)	회장 부회장	임광행 안종길 전태홍 박남재	보해양조(주) (주)한남조선 (유)남경공업사
	사무국장		
제16대 (1997. 04. 03.~2000. 03. 19.)	회장 부회장	임광행 전태홍 정상묵 김병준	보해양조(주) (유)남경공업사 목포도시가스(주)
	사무국장		
제17대 (2000. 03. 20.~2002. 06. 24.)	회장 부회장	전태홍 박일수 국방현 윤용화	(유)남경공업사 삼진물산(주) (유)초원건설
	사무국장		
제17대 (2002. 06. 25.~2003. 02. 24.)	회장 부회장	국방현 박일수 윤용화	(유)초원건설 삼진물산(주)
	사무국장		
제18대 (2003. 02. 25.~2006. 02. 21.)	회장 부회장	국방현 김호남 박청웅 손영률 이한철 이혁영 주영순 윤용화	(유)초원건설 근화건설(주) 광산목재(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태원여객 씨월드고속훼리(주) (주)HN철강
	사무국장		
제19대 (2006. 02. 22.~2009. 02. 18.)	회장 부회장	주영순 박철재 이한철	(주)HN철강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태원여객
제20대 (2009. 02. 19.~2012. 02. 20.)	사무차장	이혁영 최창원	씨월드고속훼리(주)
제21대 (2012. 02. 21.~2012. 05. 28.)	회장 부회장	주영순 김호남 김성모 노희웅 이한철 이혁영 최창원	(주)HN철강 근화건설(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행남자기 (주)태원여객 씨월드고속훼리(주)
	사무차장		



제21대 (2012. 05. 29.~2015. 02. 16.)	회장	김호남	근화건설(주)
	부회장	이혁영 이한철 노희웅 고창희	씨월드고속웨리(주) (주)태원여객 (주)행남자기 대아산업(주)
	사무처장	김성모 박병욱	현대삼호중공업(주)
제22대 (2015. 02. 17.~현재) *2017. 02. 21. 기준	회장	김호남	근화건설(주)
	부회장	이한철 이혁영 고창희 윤문균	(주)태원여객 씨월드고속웨리(주) 대아산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사무처장	서행조 박병욱	서한산업개발(주)

박병욱 |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